

'엉덩이 기억상실증' 졸업작품전시회

전북대 회화/시각예술 전공 학생 전시 6~11일 개최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전주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 전관에서 전북대학교 회화/시각예술 전공자들의 졸업작품전시회가 열린다. 10명의 졸업생, 강민정, 김민, 김민주, 김희정, 박정은, 신연호, 유미소, 유지혜, 최소연, 홍민기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 공부하고 실험한 다양한 회화 및 설치 작업을 통하여 결실인 작품집을 주어로 준비했다. 형식의 공으로 만들어진 개인의 고유한 이야기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앉아서 그림만 그린 학생들의 젊음과 열정을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테마로 풀어냈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졸업 작품 발표를 넘어, 각자가 지난 시간 속에서 축적해온 고민과 실험의 흔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일상과 관계, 그리고 예술적 탐구의 과정을 작업 속에 녹여내며 관객과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였다.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재치 있는 테마 아래 펼쳐지는 졸업 전시는 젊은 창작자들의 뜨거운 에너지와 그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자리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엉덩이 기억상실증' 졸업작품전시회 포스터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

미신 짓거리?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해방이 된 후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여러 정치세력이 난무했던 여파는 고창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또는 이를 혼합한 여러 정치 집단들은 각자의 이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고군분투했다. 고창지역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자생적으로 혹은 일본 등에서 수입된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 다각적인 운동을 펼쳐왔고, 빈민층 구제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든가 야학을 열어 문맹을 퇴치하는 건설적인 운동을 진행해왔다. 농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해방 이후 남로당으로 정치세력화하면서 자연스레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자들은 남로당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제주와 여수 순천에서 좌익 세력에 의해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자 비교적 좌익을 우호적으로 바라봤던 눈길들이 비틀어졌다. 1949년 가을 무렵, 박규환과 연기택은 간단한 무구와 장구를 짊어지고 같은 마을의 정서 집 곳을 하러 가기 위해 싸리문을 나섰다.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 혁명하려는 의욕을 없애거든요. 굿은 더 그렇지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고, 계급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 공산주의에서는 신앙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굿은 전면 금지하고 있어요. 혁명에 지장이 있어서요. 우리 마을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마을인데 굿을 하면 되겠어요?”

처음엔 조용조용 천천히 말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고무되었는지 박대우는 목소리를 높였고 연단에 서서 청중들을 향해 연설하듯 박규환에게 일갈했다.

“자네도 알다시피 굿이라는 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이로운물을 줬으면 찢지 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잖아. 농민을 위한다는 자네가 그걸 반대한다니..... 어이가 없네 그려.”

“아직 공산주의 학습이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더 학습하면 굿 같은 미신 짓거리라는 하지 않을 거예요.”

“미신 짓거리?”라는 말을 듣자 박규환은 얼굴이 벌개졌고 연기택은 노래졌다.

“미신 짓거리? 자네, 지금 말 다했나?”

“항년부터가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미신일 뿐이라고요, 미신요!”

“이 사람이 정말.....”

박규환은 짊어지고 있던 무구와 장구를 벗어놓고 박대우의 목살이라도 움켜잡으려 했다.

도자기 명장 '제이미 박' · 방송인 '김병만' 과 전시회 연다

익산시, 협약 체결... 20~25일 개최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전통 예술의 감동과 나눔의 가치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한다. 익산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무형문화유산 도자기 명장 제이미 박, 그리고 그의 제자인 방송인 김병만과 도자기 전시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제이미 박, 김병만이 참석했다. 협약은 도자기 전시회를 통해 전통예술을 시민에게 더 가까이 소개하고, 작품 판매 수익을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시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시청 1층에서 열리며, 제주 백록담의 정기를 품은 제주도 흙으로 빚은 도자기 2,000여 점이 공개된다. 제이미 박과 김병만은 제주 흙 특유의 깊은 빛과 질감을 살린 작품을 선보이며, 화려하면서도 고요한 탐라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또한 전시 기간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해 나눔 실천의 의미를 더한다. 제이미 박 명장은 “전통 기법을 지키면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색과 형태를 연구해 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도자기의 온기와 고유한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무형문화유산 도자기 명장 제이미 박, 그리고 그의 제자인 방송인 김병만과 도자기 전시회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병만 씨는 “스승과 함께 만든 작품을 익산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며 “전시회를 찾는 분들이 흙과 불이 만든 한국적 아름다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익산에서 만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작가들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예술의 깊이와 감동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문화예술성평등네트워크 정책포럼 열려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전북문화예술네트워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전북문화예술정책의 성평등과 다양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2025년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인상을 수상한 정보라 작가의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백미록 연구위원이 '전북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성인지적 수행방안 : 전북문화예술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연구 결과'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의 예술가기의 의미와 정책 수요'라는 제목으로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송원 대표가 각각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진명숙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강준석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본부 창작지원팀장, 신인혜 완주문화관광재단 문화가치확산팀장, 최아현 작가, 홍교훈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등이 참석해 전북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기반 강화와 정책적 과제들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장은송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